

다산포럼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

추리 소설의 매력은 삶의 잔혹함 앞과 뒤에 버티고 있는 인간에 먼저 주목하여, 그(녀)의 탐욕·위선·어리석음 등을 낱길 그대로 보여 준다는데 있다. 한때는 코난 도일과 아가사 크리스티를 좋아했고, 존 그리섬의 다음 작품을 고대하는 열성 독자이기도 했다. 법정 소설이 지루해질 즈음은 북유럽 작가들을 접하면서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3부작과 요네스보의 길고 긴 소설들에 밤새워 빠져들었다. 그러나 장르 소설이 대체로 그렇듯이, 장편으로 갈수록 왕왕 플롯이 스토리를 촘촘히 받쳐 주지 못해, 저자가 겪었을 법한 고충이 독자인 내게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언제부턴가는 G.K 체스터턴의 브라운 신부(Father Brown)나 크리스티의 마플할머니(Miss Marple)가 해결사로 나서지는 짝막한 소설들에 더 마음이 쏠린다.

실제로 탐정 프와로로 우리에게 친숙한 크리스티는, '자신의 재능을 보이기 위해 책 한 권을 필요로 하는 프와로'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안목으로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마플을 더 사랑하라고 고백한다. 그녀는 미스 마플에 대한 기대

하나를 얻기 위해 아홉을 내주더라도

와 애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놀라거나 흥분하는 일이 없는 선량한 독신 노인 마플은 평생을 시골 마을에 살며 인간 사악함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배웠고, 그런 지식을 활용해 사건을 해결한다. 그녀는 작은 마을의 일상이란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그 마을을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세상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문제

마플은 인간의 속성을 훤히 알고 집요하게 달려들어 기어이 파멸을 보고야 마는 사탄의 계락을 남보다 먼저 간파한 인물일지 모른다. 인간 실존의 정곡을 짚는 때론 사람의 입을 빌려-사탄의 '명인' 들은 넘쳐난다. 가령 구약의 욥기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되 끝은 장대하다'고 속삭이거나 "불꽃이 위로 치솟듯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난다"고 명쾌하게 삶의 실상을 정리해 준 이는 의인 욥이 아니라 신의 질책을 받은 그의 친구들이었다. 고대의 '파우스트'에서 "모든 이론은 화석이고 푸르른 것은 오직 인생의 황금 나무뿐"이라며 너스레를 떨거나 "교회의 위장은 튼튼해서 온 나라를 집어삼켜도 결코 탈 나는 법이 없다"며 정색하던 이는, 세상 학문을 통달했다는 파우스트를 농락하던 메피스토фель스였다. 욥을 의인으로 치켜세우는 신에게 "그가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당신을 경외하던가요?"

라는 촌철살인의 반문으로 인간의 욕망을 꿰뚫던 이 또한 사탄이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신의 가장 큰 형벌은 인간을 저마다의 욕망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라 했거니와, 뉴욕의 칼럼니스트 신시아 하이멜이, 신이 고약한 취미가 있어 인간을 골려 주려 한다면, 인간의 가장 간절한 욕망이 실현되게 한 후 마침내 그가 허무함을 못이겨 스스로 파멸해 가는 모습을 보여 고소해 하리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대부분 불행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악이 인간성에 본래적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영국 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이유 없이 촉발되는(uncaused) 악행은 없거나,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인류 발전을 위해 유익하다고 말한다. 그는 상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순간 상대는 발본해야 할 추상적 대상이 되고, 이는 배후에 있는 원인의 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결국 더 큰 악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9·11 참사가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그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이 지냈던 어마어마한 희생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기원이 본성이든 환경이든, 물질과 인정(認定)의 욕망 혹은 이해관계에 갇힌 인간은 인식과 도덕적 판단을 자의로 중지 또는 왜곡하면서도 짐짓 모른 채하거나 정당화하느라 분주하다. 그리하여 신학자 톰 켈러는, 인간이란 자신의 허

물을 은폐하고 선함을 증명하고 승인받기 위해 '끝없는 소송'(endless litigation) 중에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자신의 과오에 몸서리치며 선한 삶을 살리라 다짐을 거듭해도 그 즉시 다시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민주주의는 인간과 삶의 실상에 관한 이런 인식에 조응하는 정치 체제다. 가령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되, 도덕적 사망명에 불타는 권력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홀로 돌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내용에 앞서 '건제와 균형' 혹은 '상쇄력의 제도화' 등 절차로 먼저 규정되는 이유다.

건제 없는 정치의 위험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대통령이 지방 선거 직후 청와대 한 회의에서 했다는 이 말의 진정성을 믿는다. 보수진영이 위기의 원인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빈사 상태에 있다면, 논리적으로도 한국 정치가 걸어야 할 현로는 집권당의 책임 아래 펼쳐질 수밖에 없다. 아권의 현재와 미래가 암담할수록, 집권 세력을 격정해야 하는 심사가 고약해서 편치 않거니와, 권력이기 특권이 돼서 민주주의가 독단과 억압으로 퇴행하지 않으려면, 온전한 하나를 얻기 위해 아홉을 내주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비장함이 그래서 절실하다.

특별기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켜졌던 겨울로부터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역사적인 촛불 국민 혁명과 탄핵이 열어놓은 기회를 개혁 정치 세력은 명운을 걸고 살려야 할 임무가 있다. 개혁 입법을 성공시켜 항구적인 개혁의 길을 여는 것은 촛불 국민 혁명의 최종 승리를 보증할 것이다.

냉정히 돌아보자. 개혁 입법에 관한 한, 지난 1년여간 문재인 정부는 식물 정부 아니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을 강조한 선거 제도 개혁도, 그 어떤 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 바 없다.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직을 보유한 기득권 야당의 극력 반대를 넘어설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여당도 민주평화당 등의 개혁 세력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단연하

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은 '개혁 입법 연대' 뿐이다

간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와 똑같은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단 한 건의 개혁 법안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다. 나는 여러 자리를 통해 '개혁 입법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재·보궐선거를 통해 개혁 세력은 국회 157석 이상을 확보했는데 이들이 '개혁 입법 연대'로 굳게 뭉치기만 하면 앞으로 1년 반 여남은 임기 이내에 모든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정확히 157석이다. 국회 개혁 세력이 국회 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전체 회의의 과반수는 물론 모든 상임위에서 1석 차 이상 과반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법률은 국회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전체 회의의 사회권을 가진 의장과 상임위의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원장을(법사위원장 포함)이 법안 처리에 협력하고 상임위와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모든 개혁 입법이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 의석 180석 이상이어야 소수파의 반대를 물리치고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 나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법을 심층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 최소 157석의 개혁 입법 연대를 이루면,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개혁 입법을 모두 완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소수파가 안건 조정 회의, 무제한 토론 등의 수단을 활용해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의사 진행을 최장 3~4개월 지연할 수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한 입법을 무산시킬 수는 없게 돼 있다.

물론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더라도 연대 밖의 야당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렇지만 개혁에 반대하는 소수파가 상임위를 장악하고 제멋대로 입법 자제를 저지하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소수파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촛불 민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개혁 입법 연대는 단순한 원구성 협상 전략이 아니다. 막연히 개혁 세력들이 동

처서 노력하지는 차원도 아니다. 국회 내 개혁 반대파의 저항을 뚫고 수구 기득권 구조의 청산을 본령으로 하는 촛불 혁명의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개혁 입법 연대가 이뤄지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들을 백퍼센트 법률적, 제도적 결과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상반된 두 길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개혁 세력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기득권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주고 끌려가면 어떠한 개혁 입법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이제부터라도 '개혁 입법 연대'로 뭉쳐 국회의 주도권을 확고히 한다면 모든 개혁 입법을 해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앞장서서 개혁 입법 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 과연 대통령과 여당이 20대 국회를 촛불 혁명 완성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배짱과 의지가 있는가. 그게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 입법에 관한 한 계속 식물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개혁 입법 연대는 '협상'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

社說

민생·개혁 입법 돌파구 '개혁 연대' 주목한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개혁 입법 연대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의 처리를 위해 범진보 정당들이 개혁 연대를 형성해 국정을 주도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여소야대 지형은 해소되지 않아 개혁 입법을 홀로 추진하기에는 힘에 부친다. 이런 상황에서 130석의 민주당이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 '진보 성향' 세력과 함께하면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인 157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이른바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자는 목소리가 평화당과 정의당에 이어 여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평화당 박 지원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

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 벨트를 구성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 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 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평화와 개혁 연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바른미래당도 개혁 입법 연대에 적극 동참해 157석을 뛰어넘어 184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입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 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많은 민생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으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뒷받침할 국회의 활동도 미약하다. 이를 타개하려면 원 구성 협상을 조기에 매듭지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다만 무리한 연대는 협치를 되레 해치고 정략적 접근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여야의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강진 여고생 사건 끝까지 전모 밝혀내야

강진군에서 일어난 여고생 사망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실종된 여고생 A양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되는 유력한 용의자는 아빠 친구인 김 모(51) 씨이다. 시신은 용의자의 차가 주차됐던 곳에서 산길로 1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용의자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감정한 경찰은 트렁크에 있던 낫에서 A양의 DN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면 용의자인 '아빠 친구'가 거의 범인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A양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용의자 김 모 씨가 A양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집 근처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인데 경찰은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無等鼓

"인부들이 지계에 흠한 포대씩 짊어지고 묘목을 한 그루씩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돌산에 나무를 심으니 첫해에는 60~70%가 죽어 버렸고, 3년이 지나서야 나무들이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이는 숲 해설가다. 탐방객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수많은 인부들이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일대 험벗은 돌산에 삽질과 팽이질로 흙을 부어 넣고 묘목을 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

당시 지천명(知天命)을 눈앞에 둔 한 사업가는 왜 벌거숭이 산야에 나무를 그토록 심고 가꾸려 했을까? 50년이 지난 현재, 그의 '임업입국'(林業立國) 의지는 거대한 돌산을 울창한 숲으로 변모시켰다. 그동안 일밖에 공개를 하지 않아 '비밀의 숲'으로 불리는 초당림(草堂林) 이야기다.

올해 97세인 김기은 백제약품 명예회장은 1969년부터 척박한 강진 칠량면 골짜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조립지면 적은 290만4000평(960ha)으로 여의도 면적의 세 배에 달한다. 개인이 소유한 인공림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 29일과 30

일 이틀간 초당림 숲속 힐링 체험 행사가 열렸다. 평소 가 볼 수 없는 '비밀의 숲'의 빗장이 열리는 좋은 기회여서 기자 역시 초당림을 찾았다. 그동안 이름만 들어 오던 터라 숲속이 어떤 모습일지 몹시 궁금했기 때문이다. 차를 버리고 편백나무가 도열한 진입로를 따라 들어간 초당림은 기대 이상이었다. 계곡을 끼고 설치된 목재 데크를 따라 연수원까지 이어지는 2.5km 구간은 하늘로 곧게 죽죽 뻗은 아름드리 편백나무와 삼나무, 백합나무,

테다(Teada) 소나무 숲이 반박됐다.

강진 초당림

탐방로 길옆에 자라는 하늘말나리와 누른

하늘말나리는 탐방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끊이지 않는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초목 숲속에서 반짝한 머릿속을 정화할 수 있었다. 100년 앞을 내다보며 후대를 위해 열정을 바친 한 독립가(篤林家) 덕분에 우리는 아껴 보존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녹색 '힐링' 공간을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곳 초당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계곡물을 이용해 조성한 물놀이장이 그것인데,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28일간 운영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NGO칼럼



백양국 광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한반도의 대형 포유 동물이 사라지는데 일제강점기 때 시행된 '해수 규제'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제는 위험한 동물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호랑이, 표범 등 총 7만여 마리의 야생 동물을 계획적으로 제거했고 반달가슴곰 역시 이 무렵 거의 사라졌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계속 감소했으며 비싼 약재로 거래되던 웅담(곰의 쓸개)을 얻으려고 밀렵이 끊이지 않으면서 멸종 직전까지 몰리게 됐다. 반달가슴곰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 329호 및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 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술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이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나뭇의 경험이 축적됐지만 그러는

반달가슴곰과의 공존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랐다. 올해로 14년차 꾸준히 펼쳐온 결과 현재 지리산 야생 개체 수는 56마리로, 기존의 목표치(2020년까지 자체 생존 가능한 50마리)보다 앞 당겨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을 넘어섰다.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적정 서식 개체 수(78마리)보다 파악 되지 않는 개체 수(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까지 포함하면 그 보다 훨씬 많을 거라 판단된다.

반달가슴곰 야생 개체 증가에 따라 자연스레 활동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지리산 주변 지역인 곡성과 광양, 경북 김천 지역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현상을 감안해 지난 5월 4일 구례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관으로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 및 공존 선언식을 가졌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주기 달성 보고와 개체 관리에서 서식지 관리 전환으로 프로젝트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공존 협의체 구성이 무색

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일 반달가슴곰 한 마리(개체번호 KM-53)는 김천으로 3차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차량과 충돌 사고로 골절을 당해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해 광안 백운산에서 동면을 하고 활동하던 KM-55조자 울무에 걸려 사체로 발견됐다.

이런 현상은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새로운 서식지 마련을 서두르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증식·복원을 통해 한반도 생물종 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멸종 위기 야생 생물 증식·복원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지속적인 보호 정책과 서식지 환경 조성·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인근 백운산으로 거쳐를 옮겨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기 전에 지난 번 사고처럼 답습을 하지 말고 반갑게 환영해 줄만한 선물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체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